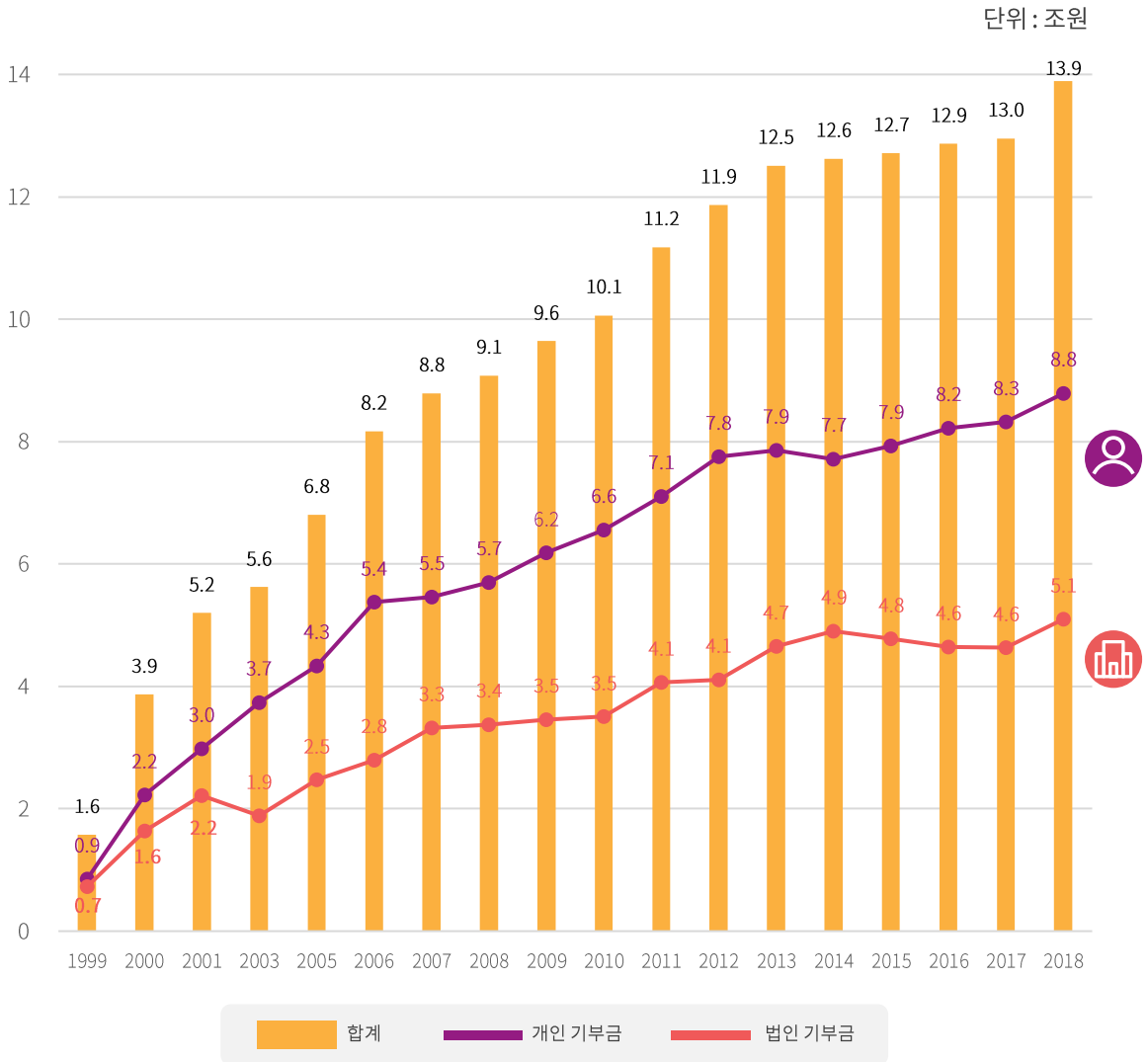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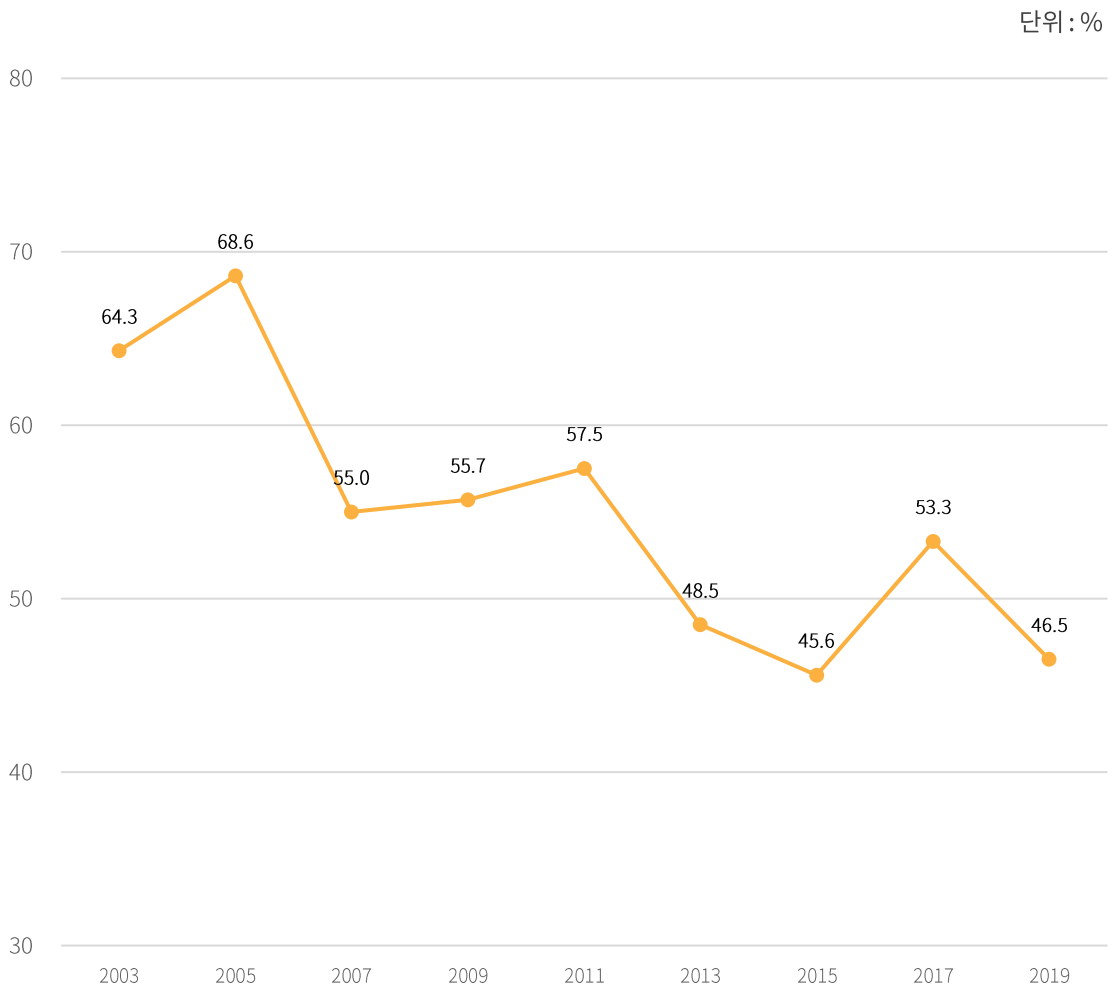
## 국내 기부금 총액



출처: 국세청 통계연보 \*2018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

- 국내 기부금 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기부금과 법인 기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. 따라서 세무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.
- 총 기부 금액은 2000년 6.1조, 2010년 11.5조, 2018년 13.9조이다.
- 지난 20년 평균 개인기부금 65%, 기업기부금은 35%며, 1998년 이후 개인기부금 총액이 기업기부금 총액을 앞지르고 있다.

## 기부 참여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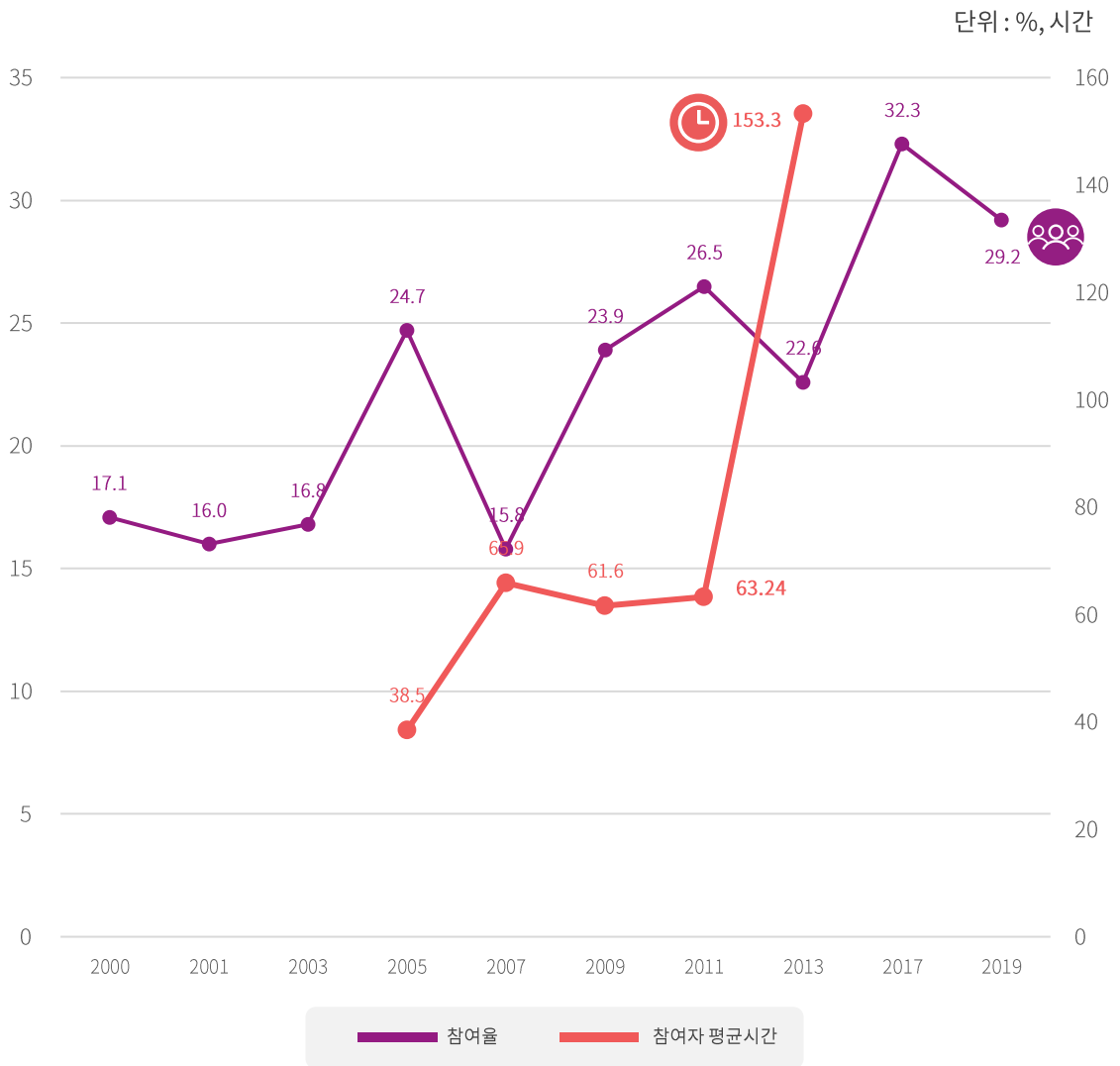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기빙코리아

\*2003년~2011년은 친척, 노숙인 등 개인에게 직접 기부 포함, 2013년 이후 개인 직접 전달은 기부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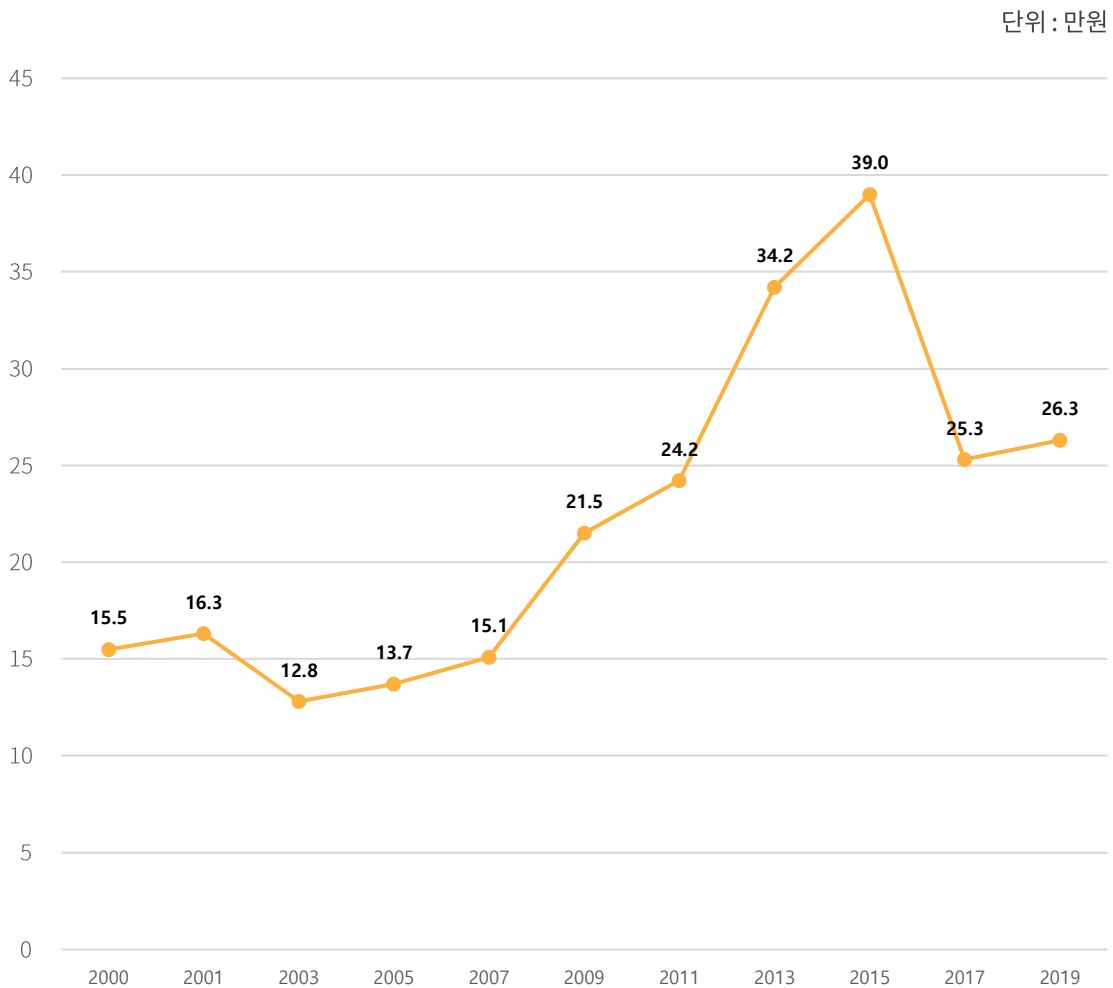
- 기부 참여율은 최고 68.6%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3년 50%이하로 감소하였다.

## 자원봉사 참여율 및 시간



-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0년 17.1%, 2005년 24.7%, 2017년 32.3%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 참여율은 29.2%이다.
- 참여자의 연간 평균 자원봉사 참여 시간은 2005년 38.5시간, 2007년 65.9시간, 2013년 153.3시간으로 증가하였다.

##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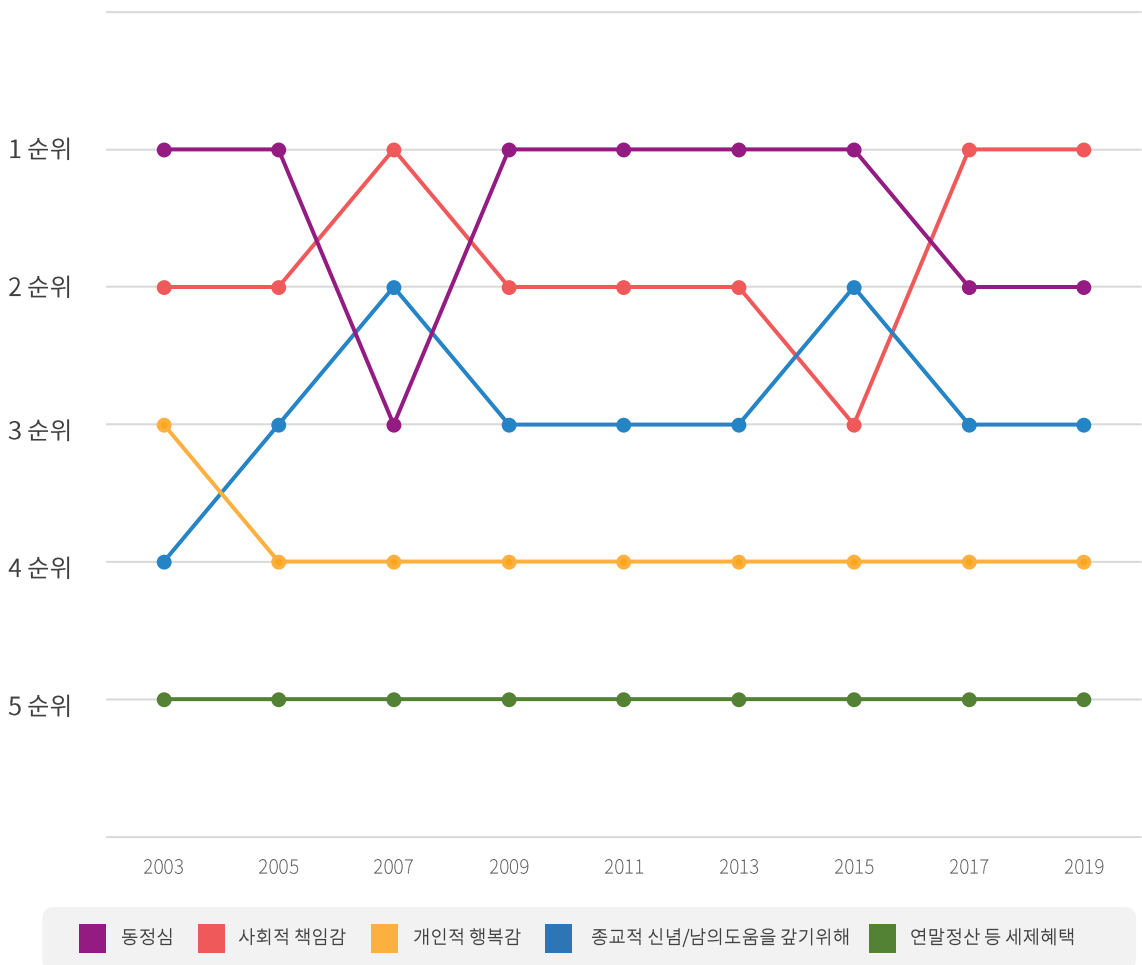
출처: 기빙코리아 \*2018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

\*2015년을 제외하고 전 년도에 걸쳐 1억원 이상 응답자가 부재하였음.

2015년은 1억원 이상 기부자를 제외한 금액이며, 포함 시 평균기부금은 56.8만원임

- 기부자 평균 기부금은 2004년 15.5만원에서 2015년 39만원까지 상승하다 2017년 25.3만원, 2019년 26.3만원을 기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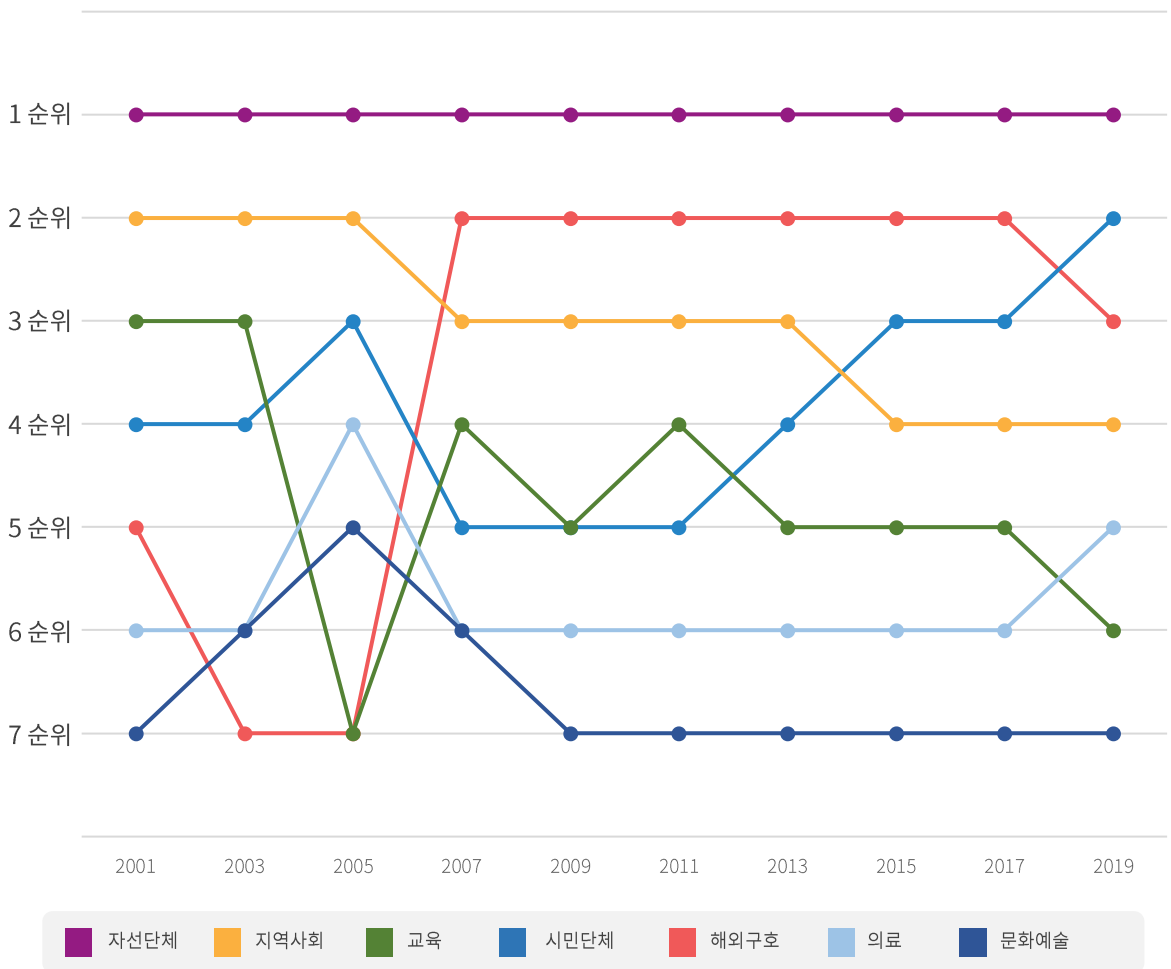
## 기부동기 순위



출처: 기빙코리아

- 기부동기는 대체로 동정심 > 사회적 책임감 > 개인적 행복감 > 종교적 신념 > 세제혜택 순으로 나타났다.
- 기부동기는 2000년대 초반 64.6%로 동정심이 월등하게 우세하고 사회적 책임감 26.6%와 18%포인트 차이가 났으나, 2017년, 2019년은 사회적 책임감이 각각 31.3%, 30.8%로 가장 높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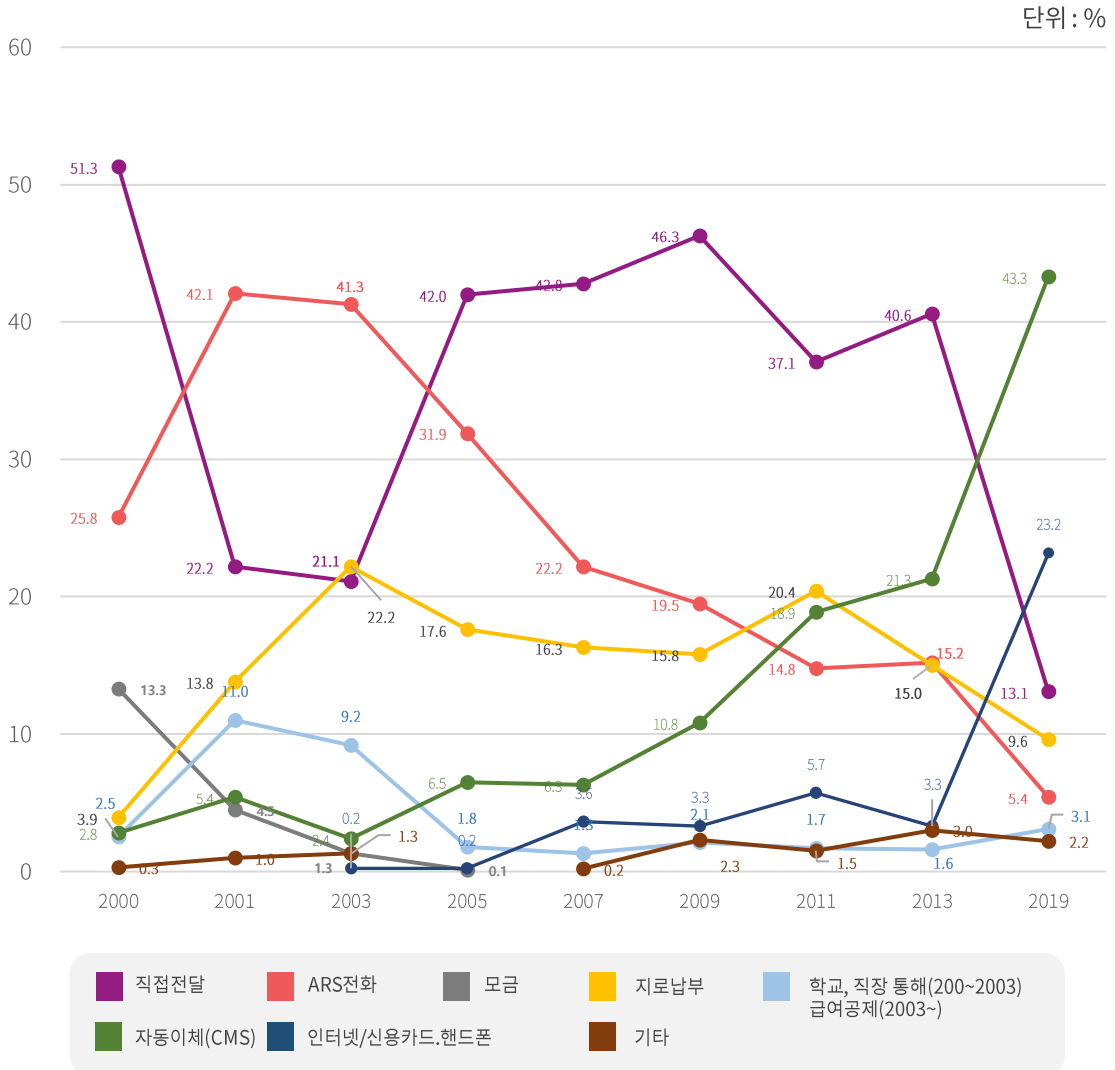
## 기부처



출처 : 기빙코리아

- 기부분야 중 자선단체는 매해 월등한 1순위이며, 다음으로 해외구호, 지역사회, 시민단체, 교육, 의료, 문화예술 순이다.
- 해외구호는 2007년 이후 2순위로 급상승하였다.
- 시민단체는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다 201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순위를 기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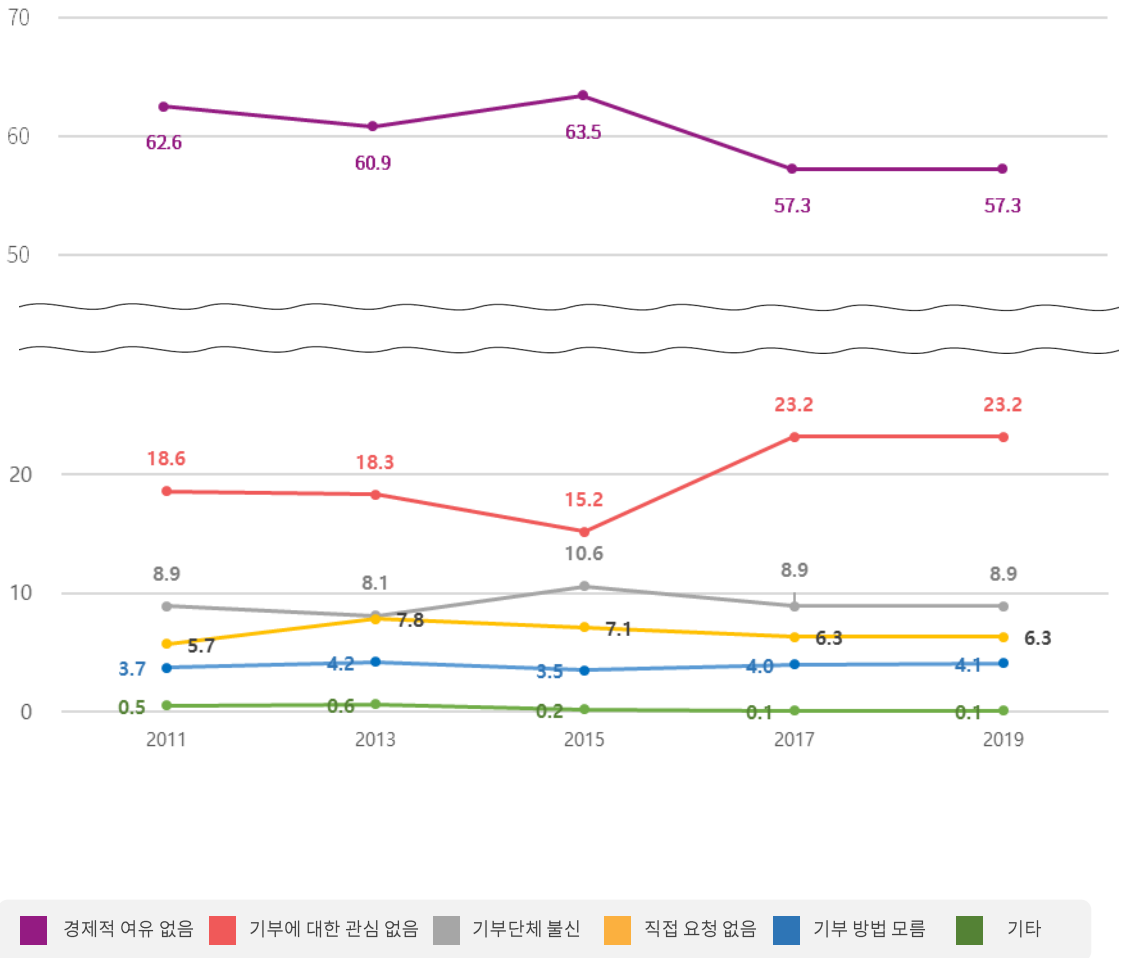
# 기부방법



출처: 기빙코리아

- 기부방법 중 직접전달, ARS전화, 가두모금, 지로납부는 하락 추이를, 자동이체, 인터넷/신용카드, 핸드폰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.
- ARS전화 방식은 2000년 초 25.8%에서 2003년 41.3%로 상승하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 6.2%를 기록하였다.
-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기부방식은 자동이체로, 2000년 2.8%에서 2019년 거의 50%를 점유하고 있다.
- 인터넷/신용카드, 핸드폰 방식은 2013년 0.2%를, 2019년에는 24%를 기록하였다.

## 기부하지 않는 이유



출처: 통계청 사회조사

-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 없음>기부에 대한 관심 없음>기부단체 불신>직접요청 없음 > 기부방법 모름 순으로 나타났다.